

생산서 소비까지 원스톱...광주 亞문화산업 거점이 되다

문화전당 개관
9월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착공 10년 만인 오는 9월4일 전면 개관한다. 총 공사비 6991억원이 투입된 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모두 5개원으로 구성돼 있다. 재미건축가 우규승 선생이 '빛의 숲'을 주제로 설계했다. 사진은 문화전당 야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05년 첫 삽 뜬지 10년만에 완공
문화창조원·교류원 등 5개원 구성
년167만명 찾아 2조 7000억 효과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발전소가 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이 오는 9월4일 개관한다. 지난 2005년 국책사업으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서 첫삽을 뜬 지 10년 만이다.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를 21세기 아시아 문화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화인프라 불모지였던 광주는 ‘블루칩’으로 통하는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Hub)로 첫 걸음을 떼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문화전당의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의 첫번째 관객이 되고, 창작물은 해외 관객들에게 선보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문화전당은=광주를 아시아를 선도하는 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랜드 플랜(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문화창조산업의 아이콘이다.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집중 소개하는 것 외에 궁극적으로 문화교류와 창작, 문화적 도시재생에 방점이 찍혔다.

문화전당은 연면적(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넓이·16만1237㎡로 지금까지 최대였던 국립중앙박물관(13만7290㎡) 보다 규모가 큰 초대형 복합 문화시설이다.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모두 5개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창조와 교류의 거점=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핵심가치를 아시아와 공유하고 교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대표적 공간인 교류지원센터는 세계 유명 복합문화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 공연·전시·포럼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한다.

옛 전남도청 등 보존 건물 공간의 민주인권평화기념관(가칭)에서는 문화전당 개관 콘텐트로 광주항쟁 당시 열흘간의 이야기를 기술전결이라는 서사 구조에 따라 예술적 콘텐트로 선보인다. 민주평화교류원 라빙센터에서는 교육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문화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자원 수집·활용, 아시아의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맡는다.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다학제(多學制)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식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학술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문화전당의 콘텐츠 기획·개발 등에 필요한 배경지식, 이론적 기틀, 학술적 담론을 만든다. 또, 국제컨퍼런스, 포럼 등을 통해 연구 성

과를 발표하고, 출판활동 등을 통해 문화전당과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자 간 학술교류의 장도 제공한다.

문화창조원은 연구 개발의 핵심조직인 연구팀(아시아연구팀·동시대예술팀·미디어랩·과학기술랩·디자인랩)과 스튜디오(기계조형스튜디오, 디지털AV스튜디오, 복합스튜디오)를 골격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 공간에서 지역 연구기관, 문화기관, 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뒤 복합전시관에 전시한다.

복합전시관 1, 2관에서는 아시아의 사상·종교·문화를 주제로 한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를 통해 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된다. 복합전시관 3, 4관에서는 콘텐츠 생산자(창작자), 전문가(연구자), 관객의 상호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는 연구팀과 제작팀의 창·제작 결과물이 상설 전시된다.

아시아예술극장(1700석 규모)은 아시아 동시대의 공연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창작, 유통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제작·유통 시스템을 갖춘 전문극장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공동제작자간 협력망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순회공연(유통망)을 갖추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공동제작 및 제작을 선도하면서 동시대 공연예술의 창·제작의 거점이 된다.

어린이문화원은 교육보다는 ‘놀이와 문화’, ‘창작 활동’이 중심이 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놀이와 문화,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문화콘텐츠의 제작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시아문화 기반의 어린이 문화체험장을 구축하여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예술과 상상’을 주제로 체험관이 구성돼 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 2조7000억원=문화전당 건립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운영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자사업과 관람객의 소비 지출로 인한 총 생산 파급 효과는 2조76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 유발 효과만도 직접 고용 981명을 포함해 3만582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연간 167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콘텐츠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도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입주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 내부.

친환경 방역전문 유충살충제

Altosid[®]의 S-Methoprene

BTI중 세계 최강 속효성의 명품

우리의 금지 Bactosec[®] wp BTI수화제

주민을 위한 최상의 공중방역

선진각국 등 인류가 사용하는

친환경 방역전문 살충제를 이용한

세계화된 선진 유충방역입니다.

세계인의 방역전문 친환경 살충제입니다.

Altosid[®] 속효성 수화제 생물살충제 Bactosec[®]은

독성 농약성분 환경호르몬 가정용살충제가 아닙니다.

Altosid[®] XR Briquets
(고형제) - 150일용

Bactosec[®] wp
(친환경 수용성밀물)
고형량(가정용이 아님)

Altosid[®] XRG
(고형제, 과립) - 21일용

Altosid[®] Briquets
(고형제) - 30일용

45일용
BTI Briquets
(고형제)

Altosid[®] Strike Pellets
(고형제, 팻) - 30일용

Altosid[®] S Liquid
(액제)

선진방역의 역사
방역약품 제일의 전통

상인제약주식회사

전남 영광읍 도동리 304
공장 전남 담양 금성면 담순로 317 ☎ 080-2000-419

물웅덩이, 연못, 하천, 정화조, 배수조, 준설토
투기장, 염습지, 축사주변 등에 서식하는
모기, 깔다구 등 위생해충의 유충방제제